

2019년 8월 5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수출진흥과 과 장 김상진(044-201-2171), 사무관 안광현(2176) / 제공일: 8월 5일(총 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충북 주요 농산물 일본 수출 타격 보도는 사실과 다름 [뉴스1, 8.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]

- 정부는 검역강화 등 일본의 한국 농식품 수입규제 우려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, 비관세장벽 애로 상담센터 운영, 수출 통관지원, 점검회의 개최 등 대비 중에 있음
- 8월 5일 뉴스1 < 충북 주요 농산물 일본 수출 '타격'...약 18%감소 >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충북농협에 따르면, 홍삼엑기스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은 없지만 파프리카는 일본의 농산물 검역강화로 올해 7월 수출 규모가 약 4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77%나 감소한 상황



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- 일본의 농산물 검역강화로 인해 충북의 파프리카 수출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 - 충북 지역의 파프리카 수출 감소는 수출 및 국내 유통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지난 6월중에 생산을 조기 중단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수급조절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.
- 한일 관계 관련, 농산물 수출농가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